



훌륭한 스승 만나기

조상희 | 변호사

영화 '박하사탕'의 첫머리에 '나 돌아가고 싶어, 나 다시 돌아갈래'라는 절규가 나온다. '70년대 말 순박한 노동자의 삶을 살다가 군대가서 광주항쟁 진압부대로 나서고 그 이후 교문 경찰관으로 부동산 투기꾼으로 또 타락한 생활을 즐기다가 지난 날 노동자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는 자괴감에서 울부짖는 소리다. 그런데 나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문득 '70년대 말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 즉, 대학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간절한 느낌이 들었다. 결코 가능하지 않지만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심정에서 내 가슴이 울렁거렸을까! 지금의 변호사로서의 나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른 길을 가고 싶다는 막연한 희망도 있었겠지만 그 때 뭔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라.

나는 1999년 1학기부터 포항공대에서 법률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당시 포항공대생의 교양 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개설된 강좌였는데, 처음 개설된 법률과목(‘법률의 세계’란 강좌명으로 법학 개론과 같은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시사 법률로서 여러 가지 시의성이 있는 소재와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현실에서 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전달하였다)이어서 인지 수강생들의 호응이 컸다. 포항공대의 학부생이 다 해봐야 1,200명 정도인데 그 학기에 나의 강의를 들은 학생이 120명이 좀 넘었다. 포항공대는 작지만 전문성 있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어서 50명이 넘는 강의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3시간 연강을 허용하지 않아 2개 반으로 분반해서 힘들게 가르쳤다.

강의 도중 나는 학생들의 생각과 장애에 대한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워낙 포항까지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많이 들었고, 서울에서 변호사 업무도 봐야 됐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도 없었고, 또 50명이 넘는 수강 인원으로는 개인적 접근이 거의 불가능했다. 내가 그러한 시도를 한 이유는 대학생 시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그 속에서 훌륭한 스승을 찾고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한 기억이 없다 — 아마 이전에 우리 나라에서 대학생활을 한 기성 세대의 대부분이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포항공대에 처음 들어서서 순간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이라면 정말로 제대로 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포

항공대생들은 참 복 받은 학생들이라고 내심 부럽기도 했다.

아니 서울대생들이 이와 같은 환경을 갖추고 있을까,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을까 의심을 하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대학때 열심히 공부하라고 독려하면서 자신의 연구도 많이 하는 그리고 인생지침을 가르쳐 줄 만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 사실 나는 죽대가 약해서 나 스스로 무엇을 계획해서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미리 설정하지 못하고 그래서인지 내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엎어지면서 처분대로 하겠습니까하고 내 몸을 온전히 맡기고 싶은 스승을 간절하게 찾았었다. 그런데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혹시 나를 기억해주시고 각별하게 여기는 교수님이 계실 경우 매우 죄송하지만.

포항공대생들에게 말했다. 대학 문화라는 미명하에 놀려고만 하지 말고 우선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교수님을 만나도록 노력하라고. 작은 일탈이나 방황이 있을 수 있으나 열심히 한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이에 그들은 전공 과목의 중압감이 너무 심하여 쫓기듯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전공 과목의 중요성 이외에 다른 삶의 지침을 내려주는 교수님을 만나기 어렵다고 하고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혹시 요즘 대학생들에게 훌륭한 스승을 찾고 만나라고 한다면 대학 사정이나 시대를 잘못 알고 하는 말이 될까? 아니 거꾸로 교수들에게 강의 과목의 내용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훌륭한 스승이 되기를 요구한다면 마찬가지로 시대착오적인 말이 될까?

대학의 역할이 교육, 연구, 문화전승에 있다고 하는데, 교육이나 문화전승은 결국 사람을 만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지금 학생들이 교수들에 대하여 옛날처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경

외심이나 존경심이 있지야 않겠지만, 그런 점에서 오히려 막역하게 교수와 학생 사이를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각 분야의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침을 알려줄 수 있다고 본다.

이전에 대학생활을 한 기성 세대들 가운데 혹 외국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모두다 하나 같이 우리 대학에서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공부 하나 하지 못했다고 하고 외국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쪽의 제도의 합리성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인생의 지혜나 가르침을 준 것은 우리 나라 대학에 있는 어느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도의 합리성이나 전문 분야의 교육, 훈련에 대해서야 아무리 해도 따라가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가르침이란 또 다른 문제여서 그럴 수 있으리라 보지만, 지금의 대학은 이것조차도 안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대학은 전문지식의 교육, 훈련과 축적의 장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제 아무리 인격과 덕망이 높다 할지라도 훌륭한 스승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지식에 대하여 자신과 주변 사회에 대하여 앞선 여러 가지 경험을 전수하고 그래서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급변하는 이 시대, 쫓아가기도 힘든 이 21세기에 대학에 계시는 분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일까. **김영**

조상희

서울대 법대 박사과정을 이수하여 법조계에서 계속적으로 일해 오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교육문화위원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재단법인 지산학원 관선이사,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겸임교수로 있으며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중이다.